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오로지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며
남의 잘못을 전하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7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1월 5일) 2020년 1월 29일 수요일

“결혼 군승 전역 정당” ‘비구승’ 위상 강화 계기

대법원 19일 결정… ‘태고종 전종’ 파기환송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군종 독신 예외조항을 삭제한 조계종 종헌 개정 이후 혼인한 군종장교에 대한 군종장교 전역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조계종이 표방하는 ‘비구 군승’ 정체성 강화의 주요한 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월 19일 공군 군종장교(군법사) 출신 박 모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1999년 출가해 조계종 승적을 취득한 뒤 2005년 6월 공군 군종장교로 임관했다. 조계종은 2009년 3월 군종장교 독신 예외조항이 담긴 종헌을 개정, 조항을 삭제했다. 박 씨는 2011년 6월 결혼했으며 이를 파악한 조계종은 2015년 4월 종헌 위반 사유로 승적을 박탈했다. 이어 국방부는 군종장교 전역 처분을 내렸다.

박 씨는 소송에서 2007년 12월부터 사실혼 관계였으며 조계종헌 개정 시점에는 해외연수로 개정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독신으로 규정된 군종장교(군법사)의 자격과 운영에 대한 쟁점이 명확하게 정의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현재 불교군종장교 파송의 주체는 조계종임이 재확인 됐다. 국방부는 1967년 조계종을 군종장교 요원 추천단체로 지정하고 조계종 추천을 받아 1기 불교군종장교를 선발했다. 1980년대 군승단 출범 이후 조계종 교구화 필요성도 제기돼 2005년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탄생했고 추천권한을 지니고 있다.

53사단 흥국사 건립, 62사단 영평사 건립 등 군불사와 포교에 동참한 천태종은 독자파송을 추진했지만 2014년 국방부로부터 거절당했다. 현재 천태종과 진각종 등은 군종장교 파송이 아닌 법회 지원을 통한 개별 군포교를 진행하고 있다. 태고종으로 전종한 박 씨 등의 사례로 국가인권위는 2018년 군종장교 선발시 조계종만을 파송 주체로 보는 국방부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현재까지 조계종만을 파송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종헌이 바뀐 뒤인 2011년 박 씨가 결혼을 하였고, 4년간 이를 밝히지 않았지만 2015년 조사를 통해 결혼사실이 드러난 점이 크게 작용했다. 군종장교로서 파송주체와 파송 당사자 간의 신의관계 자체가 무너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2017년 승적이 제적된 박 씨는 태고종으로 승적을 옮기고 국방부 전역 조치에 “군종장교로서 역할 수행에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현재 조계종 의식으로 통일된 상황서 종교행사 주관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군 관계자는 “만약 파송주체가 여러 종단으로 늘더라도 임관 후 전종이 허용된다면 입맛에 맞는 규율을 가진 종단으로의 이동이 이어질 것”이라며 “임관 후 파송주체 규율을 따르지 않아 생기는 자격상실이 군종장교 신분에 영향이 없다면 군종장교 자체의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 조계종으로 군종장교 임관 후 규율 위반으로 자격상실되면 군종장교직도 자격상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특별 2부 또한 군종장교 김 모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상고심도 1심과 2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박 씨와 비슷한 사례인 김 씨의 경우 1998년 조계종 승적 취득 후 2005년 해군 군종장교로 임관했으며 2014년 결혼했다.

조계종 승적이 박탈되자 태고종 승적을 취득한 김 씨는 박 씨와 달리 종헌 개정 전 사실혼인 점이

軍 파송주체 ‘조계종’ 재확인
사실혼 인정 떠나 ‘신의’ 주목
‘군승 정체성’ 강화 전기 될듯
“정체성 확립 맞춰 관리 필요”

인정됐다. 여기에 1심과 2심서는 태고종 승적으로 군종장교 활동이 가능한 점을 들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타종단으로의 전종 허용시 불러올 혼란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조계종 단일 파송체제와 불교군종장교의 군승 정체성에 대한 박 씨의 대법원 판결과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불교군종장교의 군승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에도 과제는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승법사는 “종단에서 군승으로서의 정체성을 높이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종헌 개정 전 결혼한 군법사들의 존재감은 여전히 크다. 여기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인 이들이 몇 명 더 있다. 종헌 개정이 소급적용되지 않는 군법사들과 은연 중 종헌을 어긴 군승들, 성실히 비구군승으로서 임하고 있는 이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고위직인 결혼한 군법사들이 전역한 이후 본격적으로 종단의 군승 정체성 확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정체성 확립에 맞춰 관리감독도 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종특별교구 관계자는 “군승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방침에 맞춰 교구에서는 징계위 구성과 품위 유지 등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마련해놓고 있다”며 “사회법에서도 파송주체인 조계종의 특수성을 인정한 만큼 향후 군종장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 조계사 선재어린이집은 설날을 맞아 아이들을 위한 세배체험을 진행했다. 1월 22일 선재어린이집에서 진행된 세배체험에서 선재어린이집 아이들은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에게 세배했다. 세배를 받은 지현 스님은 아이들에게 덕담과 선물을 전했다. 사진은 체험 후 지현 스님과 아이들이 사부대중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는 모습. **글 · 사진=박재완 기자**

‘바른불교’ 알릴 학술 단체 창립된다

(사)21세기 불교포럼, 오는 2월 22일 창립총회 열고 출범

초대 이사장에 강성용 교수
‘무진국제학술상’ 설립 · 운용
황경환 연구원이 사재 출연
“바른불교 알리는 통로될 것”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문화 · 학술단체가 새롭게 창립된다.

(사)21세기 불교포럼은 오는 2월 22일 오후 1시 30분 경주 경북신문 씨에로빌딩 4층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21세기 불교포럼 초대 이사장은 강성용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부교수이며, 발기인으로는 김세곤 동국대 경주캠퍼스 대외협력처장 · 박상호 (주)경주ICS 이사 · 임승택 경북대 철학과 교수 · 차상엽 前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교수 · 황경환 초기불전연구원 선임연구원 · 함형석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21세기 불교포럼의 핵심사업은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와 연계돼 추진될 ‘KABS 무진국제학술상’ 운용이다. 무진국제학술상은 21세기 불교포럼이 창립될 수 있도록 자산 3000만원을 출연한 황경환 선임연구원의 법명인 ‘무진’에서 비롯됐다.


강성용 교수


황경환 선임연구원

영어논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진국제학술상은 매년 3편의 우수 논문을 선정해 이를 시상할 계획이다. 박사학위 취득한지 5년 미만인 세계의 모든 불교학자들은 응모할 수 있다. 지난해 공모를 진행한 무진국제학술상은 현재 제1회 수상자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21세기불교포럼은 불교의 대중교육 및 학술단체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며 정기적인 포럼 및 대중강연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인문학 발전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제적인 역량을 갖춘 불교학자와 불교 활동가를 발굴 · 육성하는 사업도 전개한다.

사재를 출연한 황경환 선임연구원은 “오직 ‘바른불교’를 알리겠다는 서원으로 마음을 냈다”면서 “무진국제학술상은 바른불교를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된다. 국제 수준의 논문을 통해 불교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또한 한국불교학의 위상이 강화되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용 초대 이사장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부처님의 원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를 각자의 삶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21세기 불교포럼’을 창립한다”면서 “‘21세기 불교포럼’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 구현이라는 문제의식으로 현실을 고민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알려 한국불교와 불교학을 밝히는 불사인 ‘21세기 불교포럼’에 사부대중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21세기 불교포럼은 황경환 선임연구원이 출연금과 연간 운영금 5000만원으로 이뤄지며, 취지에 공감하는 이들의 회비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